

헤센 독서 모임 July 13, 2025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성해나 - 혼모노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넷플릭스 왜 보나, 성해나 소설 보면 되는데.' 박정민씨의 자극적인 추천사에 혹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
'한 사람으로 세상을 품는 글들, 상황 속에 깊숙이 들어가 적절한 마음을 캐치해 나오는 문장'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 - 믿음으로 덮어버린 진실의 일면이 나를 다시 덮쳐올 때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근데 그래도 되는건가. 실수라고 해도, 만약 그게 내 아이의 일이었대도 김곤의 영화를 몇번 씩 관람하고 굿즈를 소비할 수 있었을까. 나는 늘 헛갈렸다."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 - 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인간을 위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무드 - 한국계 3세대의 탈맥락, 선물 받은 배지를 문화콘텐츠로 소비한 매끈한 세계 "알 수 없지만, 아주 좋은 하루였어요" 혼모노 - "니세모노"가 되어버린 무당 "가벼워진다. 모든것에서 놓여나듯, 이제 진짜 가짜가 된 듯"
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덮은 것들을 마주하는 느낌. 이야기가 지나간 자리에 내가 우두커니 서서, 내 몫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